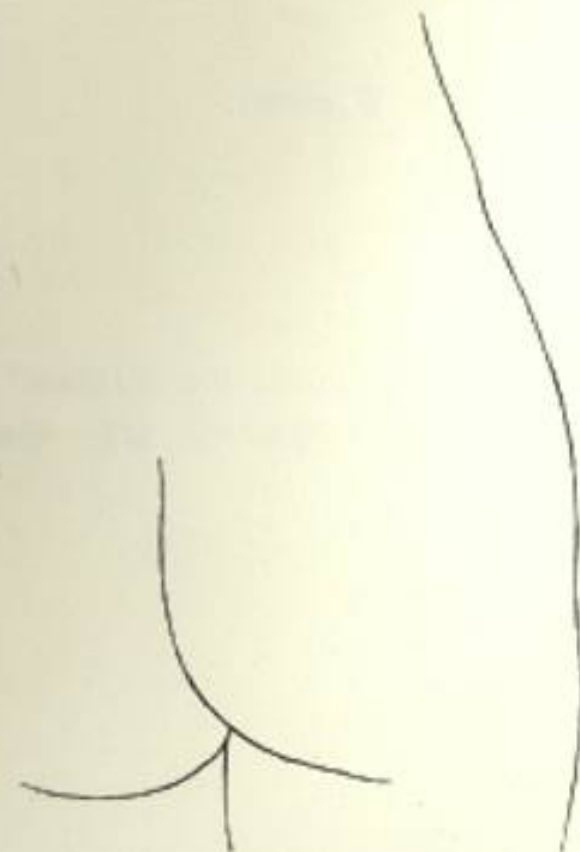


# '밀스루' 보고서



Picasso

느끼고 상상해봐/복수고 만끽해봐/사실 그것만 있는건 아니잖아!?

2005.05.30

고려대학교 13대 여학생위원회 & 밀스루 실천단

## 목차

### 1. 여성주의 문화제 '밀스톤'

;땅에 발을 디디고 서서 무지개를 바라보며 by주

### 2. 그녀 이야기 by뭉순

### 3. Tapar의 그림에 나타나는 여성의 몸 by안

### 4. 만화, '밀스톤 교육' by G.R

### 5. MSN 대답,

'To be harny or not to be harny.. that's the problem.'

by 준, 뭉순, 담슈, 심, 혜중, 엠티

;성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 6. 내 생애 꼭 하후본인 특별한 날 by심

;영화 '밀애'

### 7. 첫경험은 환상인가? by슈

;영화 '팻 걸'

### 8. 나는 자취를 한다 by주

### 9. 특별한 혹은 평범한 그녀들과의 만남 by저리

;여성주의 문화제, '밀스톤' 풀 경험하다.

### 10. '밀스톤' 풀 만든 사람들의 한마디

## 여성주의 문화제 '밀스톤'

;땅에 발을 디디고 서서 무지개를 바라보며.

by 주 (mc-escher@hanmail.net)

거리의 악사가 장래희망이지만

여위일로 바빠서 기타를 배울 시간이 없는 주

여성주의의 출발점이자 근원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참의 설전 후에 여성주의는 '감정-느낌'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이 설전이었던 까닭은 여성주의가 근거한 바로 그 감정이란 부정적 감정들이 거의 전부라는 상대의 말에, 나는 긍정의 감정들에 기반한 여성주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물론, 온전히 어느 한쪽의 감정에 근거해 여성주의를 구성하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부정적 감정들을 치유하고 해소한 후에는, 긍정의 감정에 기반하여 긍정의 언어로 그것들을 써내려가야 하니까요.

말과 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그 뜻을 전달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가끔 나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언어로 재구성해내고자 할 때 종종 힘겨움을 느낍니다. 있던 개념을 혹은 단어를 만들어 새로 규정해야 하는 어려움- 이 세계와 언어가 대응한다면 분명히 느끼는 나의 감정을 표현할 것이 어디엔가 있어야 하는데, 왜 그것은 기존의 언어가 아닌 새 언어를 만들어내야만 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까요? 그것이 남성중심적인 개념의 체계와 남성 중심적인 언어를 답습해온, 또 답습해야만 했던 탓이라 말한다면 추상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최선의 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기존의 세계관이라면, 여성주의는 그것과 다른 세계관(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며,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던지며 고민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새로운 언어를 '구체적인 느낌'에서부터 시작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적 불쾌감'이 아니라 '성폭력'을 먼저 말해보려한다면, 그것은 사실 결론을 선택한 것이라서 이제 '성폭력'이라 말함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과업은 그것이 왜 성폭력이 되는지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설명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성폭력'이라는 말이 가지는 아우라 때문에, 그것이 남성중심적 세계에서 관습적으로 그리고 널리 통용되던 선입견들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제에서 굳이 '성폭력'이라는 큰(그리고 절실한) 화두를 던져야 한다면 그것은 '성적 불쾌감'이라는 느낌에서 출발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폭력을 새로 쓰기 위한, 그리고 누누이 성폭력에서 피해자중심주의를 말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과도 맥락이 다른, 근본적으로는 성폭력을 여성이라는 정치적 소수자의 목소리로 말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성주의 실천 내에서의 지금까지 줄곧 반복되고 재현되어 왔던 과정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을 한 번 더 '느끼고' 싶다고 말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제 판들이 대체로 '어떤 주장을 일목요연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형식을 따라왔다면, 나는 이번 문화제 판에서는 '나의 성적 불쾌감'들이 '성폭력'까지로 이어지는 그 감정의 전개과정들

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불쾌감 중의 하나의 예이고, 또 성적 쾌감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양한 곳까지 닿을 수 있겠지요. 나의 성적 판타지, 너의 성적 판타지. 그러다 보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고, 그 성적 쾌감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 나의 정체성 중 하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 정체성들은 서로 다르고, 또 소수의 어떤 정체성들은 쉽게 자기정체화를 하지 못하게 억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고..... 이렇게 느낌들에서 어디론가 생각의 물꼬가 터지고 방향을 잡게 되지 않을까요?

문화제의 큰 이름인 '밀으로'는 말 그대로 한사람 한사람의 '느낌', '감정', 그리고 '경험'에서 출발하고자 한다는 전체 문화제의 기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너무 큰 개념들부터 먼저 떠올리지 말고 밑에서부터 출발하고, 밀으로밀으로 내려와 각자의 다양한 목소리로부터 출발해보자는 의미이죠. 그래서 '성적 쾌감'과 '성적 불쾌감'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성적 쾌감과 성적 불쾌감의 느낌과 성적 판타지를 이야기해보자는 [느끼고 상상해봐!], 성적 쾌/불쾌를 느끼는 매커니즘에서의 남성중심주의를 깨고, 여성주의적 향유로 나아가자는 [부수고 만끽해봐!], 그리고 성기 위주의 성담론을 해체하고 성의 영역을 다양하게 넓히려는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나는 이것들을 통해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의 출발점에 발을 딛고, 땅에 서서 여러 색깔의 무지개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 민주광장에서는...

상황 맞춤형 조형물 '안으로 들어가'  
성적 쾌감과 성적 불쾌감 '지도그리기 & 플라쥬'  
일인용 밀실 'Fantasy Zoon'

### 학생회관 3층 여학생위원회방에서는..

저녁 7시부터 영화 '팻 길'  
상영 및 토론회

### 여성주의 문화제 '밀으로'

느끼고 상상해봐/부수고 만끽해봐/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2005. 5. 30. 월요일

13대 여학생위원회 + '밀으로' 실천단

chunrihyang.cyworld.com

### 그녀 이야기

by Muon (foptousi@hanmail.net)

새 신을 신고 뛰여보자 팔짝

#### [사랑하는 키티에게]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굳이 사건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굉장히 이상한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전 같으면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누군가 성(性)에 대한 걸 화제로 삼을 때마다 무언가 신비한 것 같기도 하고 징그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조금이라고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는 모두들 늘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고, 그럴 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웃음거리가 되지요.

내게는 이것이 아주 신기하게 여겨져, 어째서 이런 것이 화제가 되면 모두들 이다지도 비밀스럽고 과장된 태도를 취하는 걸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힘으로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능한 한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든가 친한 여자 친구에게 살짝 묻거나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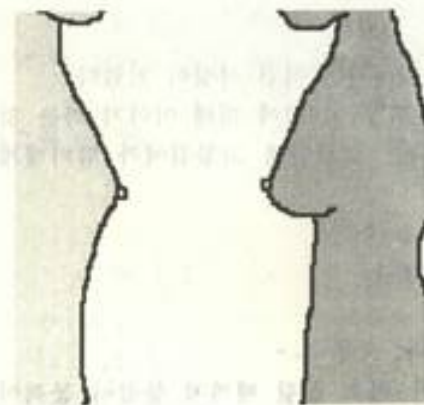
키티라는 이름에서 이미 짐작하셨다시피, 안네의 일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의 일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할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93.5.4

집에 오는 길에 이상한 아저씨를 만났다.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길래 그냥 탔는데 내 보지를 더듬거리면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였다  
"이제 집에 다왔니? 몇 살?"  
이상했다. 집에 막 뛰어와서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아빠는 그냥 웃으면서 넘긴다.  
아무일도 아닌걸까? 그 아저씨가 왜 내몸을 만지지는?



1996.9.10

박수는 가슴도 크고 생리도 벌써하는데 나는 아직 가슴도 안나오고 생리는 시작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동생도 가슴이 조금씩 커지는데 나는 아직도 미미한 가슴이다.  
남자애들은 여자애들 가슴을 보고 놀려댄다.  
달리기를 할때도 수업시간에도 개네들은 유치한 농담으로 브래지어 안한 가슴을 놀려대더니 결국 순미를 울리고 말았다.  
불쌍한 순미 그래도 나도 얼른 가슴이 생겼으면 좋겠다.

1999.7.3

드디어 생리를 시작했다!

까만 피가 나와서 병나서 죽는건가 싶었는데 생리를 시작한거다  
신기하다. 처음이라 그런지 피가 줄줄 흐른다 으으 좋지않은느낌  
하복을 입고 생리대를 하는게 이런 불편함이구나. 오늘 처음알았다.  
내 앞자리를 지나가는 전영표라는 아이가 어디서 피냄새가 난다면서 재수없다고  
혀를 끌끌 차며 운동장으로 가버렸다. 나 생리중인데...냄새나나  
내 짝궁도 남잔데.. 냄새 많이 나나.. 신경쓰인다. 학교가기 싫다.  
너네 누나나 동생은 생리 안하나? 핏덩이 같은 놈들 역시 남자애들은 어리다 흥!!  
아 맞다!

오늘 가출한 미후가 학교에 왔다. 반갑게 인사했는데 표정이 안좋다..  
흠 무슨일이 있었지? 화장실 가는길에 남자애들이 쑥덕대는걸 얼핏들었는데  
미후가 걸레란다. 따먹기 쉽다고? 뭐라 중얼중얼거리며 킁킁댄다. 저 새끼들은  
뭐지 아 16살에 자면 다 걸레가 되나보다. 걸레란 뜻은 모르겠는데 이미 거부감이 들어버리  
는건 왜일까 걸레걸레걸레..오늘은 청소를 멍멍이치고 차차랑 운동장을 걸으면서 걸레에 대  
해서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한테 안걸렸겠지? 아슬아슬하다



2003.6.9

엄마랑 아빠랑 그 짓을 해서 내가 나왔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젠 친구들도 남자친구랑 같이 잔 얘기도 은근슬쩍 하고 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이 역겹거나 이상하진 않다.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나는 오랜만에 고향집에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랑 잘 때 좋아?"  
라고.  
한참을 웃으시던 엄마는 췌던 배추를 다듬으면서 말씀하셨다.  
"그냥 아빠가 조르면 하는 거고 그렇지 뭐"  
이상했다. 아빠가 엄마에게 조르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된다. 오우-  
그리고 덧붙여 "너네 아빠가 결혼 전에 집에 데리고 와서 버스 끝길 때까지 붙잡아 둔적이  
있었어. 엄마는 그때 결혼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안

했어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했지.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치만  
신중히 해야 해. 애라도 가지면 인생 망치는 거야 여자는."  
엄마가 걱정하시는건 충분히 이해간다. 그러나 답답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내가 신중해 질 수 있을까.

15년째 남녀공학을 다니고 있는 나는 아직도 생리할 때가 되면 남자애들을 피하게 된다.  
나의 피 냄새를 남자애들이 맡고 킁킁댄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기억은 쉽게 잊혀 지지 않  
나보다. 16살 때 그 친구는 왜 걸레라는 소리를 들었어야 했을까. 3학년 2반 아이들 모두  
걸레라는 말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소리 내어 그 아이를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따돌리고 더러운 아이라고 뒤에서 씹어댔을 뿐이다.

여자아이들은 자신이 겪은 몸의 변화-생리라는 오묘한 달거리와 성적존재로 연애편계가 시  
작되면 동시에 수반되는 스킨쉽과 섹스라는 것에 대해 자신의 언어를 찾지 못한다.  
공학을 다녔던 여학생의 경우, 예기치 않은 시점에 생리가 시작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다가  
가 작은 목소리로 "야 나 생리 터졌어. 생리대 있어?"라고 물었던 경험이 꼭 한번은 있을 것  
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여학생의 성이 감춰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계약이 있기 때문이 아닐  
까? (사실 남학생들의 성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그러나 남학생의  
성은 여학생의 그것보다 관대하게 이해된다.) 여자아이가 성적변화,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정시간에 배란주기 계산법을 배우고, 질의 구조를 배  
울 뿐 생리통이 심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의 성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 연애를 시작해도 감추어진 그녀들의 성은 그  
녀들의 목소리로 재구성되지 않는다. 석순 스물네번째 이야기[빨간 구두를 신은 것처럼]을  
읽어보시길.

성적판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욕망을 재구성하  
고 성적 쾌감에 대해서 능동적인 작업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여성  
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변화들과 경험들에 대해서 억눌려있지 않아야 한다. 나는  
지금에서야 어렸을 적 변태 아저씨를 만나 불쾌한 경험을 당했던 기억이 나에게 뽕뽕 숨겨  
져 상처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나의 작은 가슴과 생리혈이 예쁘다는 것을 알았다. 나  
는 이 글을 보는 당신들이 자신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기를. 그리고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그림 by 안



그림 1



그림 2

## Topor의 그림에 나타나는 여성의 몸

by 안 (julu-july@hanmail.net)

여름에 내 몸을 불태우기



그림 3

Rolan Topor는 일러스트 작가이며 화가이며 동시에 영화연극을 만든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나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본 Topor특별전을 계기로 그를 알게 되었다. 당시 기억에 그의 그림은 하나 같이 '땀땀 떨어지게 하는' 그림이었다. 사람 몸을 뒹굴뒹굴 마음대로 그려놓지 않나. 땀이 항문에서 나와서 입으로 들어가지 않나. 특히 여자의 몸이 자주 등장하는데 거의 다 벗은 차림이고 오로지 관심은 여자의 몸과 성기인 것처럼 그려놓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Rene Raloux와 함께 만든 'la planete sauvage 야생의 행성'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그가 모든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난도질을 하는 등 공평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나는 그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성적 쾌감을 말하자면 반드시 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한다. 이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성적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MSN으로 대화를 나눴을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성적인 것과 몸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느낌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 단락에서 내비쳤듯이 나는 여성의 몸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다. 여성의 몸과 관련해서 만큼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여성주의적 인식'이 그것이다. 현실에서 여성의 몸은 자주 성적 대상화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적으로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전부가 성적으로 읽히길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직접·간접적으로 벗은 몸을 대할 때마다 여성주의적 관점을 일일이 설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중압감을 갖고 있다. 동시에 여성의 몸이 성적인 상징 속에서 읽히는 것에 거부하여 감추기보다는 터부로서의 여성의 몸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자주 드러내야한다. 그런데 사실 내가 하지 않아도 여성의 벗은 몸은 주변에 널렸다. 수업 시간에 교재 속에서, 친구들과 점심 먹으러 가는 길가에서, 영화 속에서 셀 수도 없이 등장하는 과장된 여성의 알몸을 대할 때마다 난처한 입장이 된다. 부러 편견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려고 드러낼 때마다 혹은 드러나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의 시선에 더해진 한 가지 재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든다. 그저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식은땀이 흐른다.

Topor의 그림 1를 보자. 가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자의 알몸과 그녀의 성기를 가리는 위치에 놓인 책이다. 무엇이 보이는가? 그렇다. 이 글은 Topor의 그림 몇 개를 보면서 우리가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는 자리다. 느껴지고 읽히는 모든 것을 말해보자. 자, 무엇이 보이는가? 몸에 음영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서 입체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torso(몸통)만 있고 팔과 다리, 머리가 없다. 이 여자는 얼굴 없는 여자가 아니라 몸통만 있는 여자다. 이 사람의 얼굴이 궁금해지는가? 그렇지 않다. 이 여자의 몸 위, 그것도 성기를 교묘히 가리는 곳에 작은 책을 둔 화가, 혹은 시선 속의 인물이 누구일지, 왜 그 장소에 놓았을지 궁금할 뿐이다. 이것이 객체화이고 대상화이다. 그녀가 무엇을 하다가 화가의

짧은 시간 모델이 되어 준건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다. 그녀는 반드시 '보는 사람'에게 읽혀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대체로 초상화가 뒷 배경과 작은 소품들 그리고 옷을 통해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해 반해 그녀에게는 몸 밖에 없다.

여기서 누군가가 내 해석에 반기를 들 것이다.

'당신은 극단적 페미니스트에다가, 노처녀로 늙어죽을 비판론자야! (여러분,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좋으나 인신공격은 하지 맙시다.) Topor는 말썽꾸리기 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림에서 여자 성기는 그 안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묘사되고 남자의 성기는 위로 뜰어지기 시작해서 그 남자의 이마 위 피부까지 죽 뜰어지는 즉, 몸을 기형적으로 가리는 것 없이 그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그가 여자 성기를 드러내서 그리면 그랬지 생각 없이 그 위에 책을 얹어 봤을까요? 여기서 책은 당시의 지식인 층, 이 사람이 19세기 말에 태어났으니 근대 국가가 태동하면서 나타난 부르주아나 혹은 귀족들을 비판하는 의미일거예요. 사실 책을 그리려는 건데 책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여자의 알몸과 함께 그려서 그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꼬집는 겁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오히려 좋은 지적이다! 그러나 여성주의로 그림을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당신들이 계급을 강조하고 역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것이 일리가 있다면 아무도 막지 않는다. 자, 다른 작품.

그림2에서 몇 명의 여인이 보이는가? 두 명? 한 명? 여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물으면 '저게 그림이지 무슨 여인이 있기는 어디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러나 그림을 읽는 것은 '상상력입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몸을 그리지 않는 Topor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인간주의자일 수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황금률에 딱 맞는 몸과 얼굴을 그리는 화가들에 비하면 그가 오히려 현실의 인간과 더욱 비슷하게 그리는 지도 모르겠다. 사실 유명한 그림이나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얼굴과 몸은 현실 속에 많지 않다. 오히려 젓가슴이 작작이고, 다리털 때문에 고민하고, 튼튼하고, 입 주변에 털이 난 여자가 더 많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사람 생긴 것은 다양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그림은 다양성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사람 몸을 저렇게 물건 취급 하듯이 '잔인하게' 그리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 그림은 불쾌감으로 눈을 찡그리게 만드는 그림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림이다. 왼쪽의 여자는 옆에 같이 있던 여자의 얼굴을 찾듯이 멍한 눈빛으로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의 여자는 머리는 이미 사라지고 그 위에 와인코르크 뚜껑이 박혀있다. 이 코르크 뚜껑은 그 주위를 둘러싼 다섯 개의 젓가슴이 포도송이처럼 보이는 것에서 착안한 유머인 것 같다. 오른쪽의 여자는 비정상적이지만 사람들이 크면 좋다고 하니까 젓가슴을 몇 개 더 갖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머릿도 젓가슴이 되었을까? 그녀는 젓가슴이 다섯 개다. 두 여자의 몸 사이에 불쑥 튀어나온 야채의 머리가 인상적이다. 포도송이처럼 보인 젓가슴과 불쑥 튀어나온 야채머리, 다리가 변한 무 쫄지. 여성의 몸을 식물로 만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가만히 중앙을 응시해보면 두 명의 여인의 것이 아닌 배꼽이 하나 보인다. 원래는 세 여자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야 왜 젓가슴이 다 합쳐서 일곱 개 인지 이해가 되고 애시당초에는 세 명이었던 지 네 명이었던 지 이제는 알 수 없게 되버렸다. 아직 가장 덜 변형된 왼쪽의 여자의 멍한 눈빛 속에서 읽었던 것이 몸의 변형에 대응할 수 없는 무력함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된다. 그녀들의 이름은 'MISS UNIVER(미스 우주)'! 복수를 뜻하는 S는 그녀들이

변함에 따라 자연히 떨어졌다. 슬프게 반어적이다. 이 그림 속에서 여성의 몸을 구미에 맞게 재단하고 그녀가 자발적으로 동시에 강압적으로 그 재단된 모습이 되도록 단식하게 만들고 끝없는 다이어트를 하게 만드는 이 사회가 생각났다. 이 그림 속 여인들이 다 포도송이와 야채로 변하면 누군가가 와서 코르크를 따서 한잔 목을 축일 것인가?

그림3이 성적으로 읽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바리맨이 없는 문화에서 살았다면 충분히 이 그림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작은 여자아이다. 아이가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검은 바바리 차림의 남자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면 여자아이는 울상이 되었거나 그 자리에서 얼어 붙어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다가갈까, 말까 주저하는 다리 모양을 하고 있다. 남자의 옷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상은 아무리 보아도 남자성기가 아니라 여자의 성기다. 그러므로 화면 전반을 메우고 있는 것은 바바리맨의 존재와 그가 망상 속에 있는 이미지다. 여자아이는 아직 성에 무지한 그러므로 약자이다. 이 그림이 무서운 이유가 나는 무섭다. 많은 아동들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세에 그들보다 조금 더 자란 아이들에 의해 혹은 어른들에 의해 행해지는 아동성폭력은 일회적인 경우 거의 드러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죄가 이어질 때야 비로소 드러난다고 한다. 이 그림에서 아동성폭력을 읽어내는 내 정신상태가 무섭다. 만약 지우개가 있다면 바바리맨과 그의 망상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다. 그렇지만 그림 속에서는 가능하겠으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지. 현실에는 지우개가 없으니 다른 방도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저 스케치북을 더 눌러서 옆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 두 사람 2미터 전방에 다른 누군가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동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홍상수 감독을 알고 있나? 예전에 그가 일상을 그리고 평범한 인물을 묘사하면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보고 괴물을 봤다고 한다. Topor의 그림이 어떻게 읽히느냐는 각자에게 달렸다. 그러나 기억하자. 시선의 문제가 곧 가치관을 만드는 것을. 위 세 그림에 대한 나의 알파한 해석이 당신에게 새로운 또 하나의 시선을 잘 보여줬기를 바란다.



밀으로 교육

by G.R (play83@hanmail.net)

아름다운 그레이트

밀으로 교육

by G.R





# To be horny or not to be horny... that's the problem.

여위방에는 언제나 꽃이 필니다. 수다스러운 꽃밭위에 이름을 상상 못할 꽃들을 피웁니다. 우편은 정소를 msn으로 돌려 아무도 대화하는 상대방이 누구인 지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적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4명의 열거와성한 정준들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살짝 도발적일 수 있으니 성적쾌감벨트를 단단히 착용하고 시작합니다!

편집 bu안.주.무은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남의 말:  
 전 준이라고 불러주시면 되요! 여러분께  
 각양각색의 질문을 드릴거예요  
 담요 남의 말:  
 저는 '담요'라고 합니다  
 유은 남의 말:  
 저는 유은이에요  
 (L.one). 임 남의 말:  
 전 '임'입니다.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남의 말:  
 레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옛지 남의 말:  
 저는 옛지라고 불러주세요. 주변에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은 없어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남의 말:  
 이제 대화를 시작할텐데 몇가지 규칙을 정해요  
 존대말로 하고 누군가의 의견에 다시 의견을  
 말할 때는 예칭을 부르고 예기를 끝마치면 /  
 이렇게 술러시를 쳐서 다 끝났다는 걸  
 알려주세요  
 성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이 성적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  
 유은 남의 말:  
 저는 아직은 모순적인 태도인데,  
 성적존재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내가 성적존재를 그 사람에게서 확인받으면  
 밋밋해질것인 경우가 꽤 있었던것 같아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남의 말:  
 저는 성적존재로 규정당한다는 느낌을 항상  
 아니지만...특정한 시간이나공간에서 받초  
 성역할이 부여되는 곳에서요...예를들면 가족  
 대소사에서 라든지.../  
 옛지 남의 말:  
 음 저도 그부분이 역시 큰거 같았어요.  
 어렸을때부터 남자는 어때어해야한다. 뭘  
 해야한다. 뭘 할줄 알아야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인 공간에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게 될때/

(L.one). 임 남의 말:  
 저 같은 경우는요 다리 벌리고 있을 때  
 부모님이 못하게 해요 그리고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친근한 사람이지만 이성일때는 섹스  
 스킨십을 못하겠어요 그럴때 성적존재를  
 인식하는 것 같아요/  
 옛지 남의 말:  
 아. 다리. 저는 아직도 다리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제가 그 뭐죠. 양반다리 라는걸  
 못하거든요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야 편한데  
 오늘도 아침에 혼났어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남의 말:  
 저는 그 반대 경우= 양반다리고  
 허리뽕뽕히 세우는게 습관이다가 요즘들어  
 해이해졌어요/  
 담요 남의 말:  
 저는. 여자가 어때 어때 해야한다고 어릴 때부터  
 많이 주입은 받았는데 요즘들어 거기에 대해선  
 거의 인식을 안하고 사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도 그랬구나'  
 싶었어요. 뭐 그냥 다리도 적당히 편하게 벌리고  
 앉고...요즘 들어서 성적존재라는 걸 느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인식하고서 볼때할 때랑  
 인식하고서 즐거운 때.☆ 지하실 같은 데서  
 노골적인 시선을 받으면 볼때하게 됩니다./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남의 말:  
 좋아요 잠깐 아까 유은과 레종 얘기로  
 돌아간다면.  
 역시 느낀다는 건 자극이 있어야 되나봐요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성역할을 규정받을 때야 우리가 성적  
 존재인걸까요?/  
 담요 남의 말:  
 '성적 존재'라는 말에서 '성'이라는 것이  
 이젠 어떤 사회적 쟁점의 이야기 일수도 있고  
 섹슈얼리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여전히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성적 존재 인 경우는  
 드물죠.☆/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남의 말:  
 저는 일단 규정받는다는 게 먼저인거 같구 한  
 인간이 그것만으로 온전하게 자신을  
 파악한다기보다는 규정 내리는 힘과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하는.../  
 유은 남의 말:  
 규정내리는 힘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쟁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담요 남의 말:  
 내가 여성 인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다른  
 여성들과 다른 남성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남의 말:  
 사회적 쟁점라는 게 주어지는 성역할이라는  
 뜻인거죠?/  
 담요 남의 말:

그래서 레종 남이 말씀하신 규정내리는 힘과  
 자신의 정체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맥락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나는 여성'이라는 것도  
 성적인 것이고, '나는 섹시한 여성'이라는 것도  
 성적인 것 같은데 분명 둘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남의 말:  
 '성적인 것'의 개념이 잘잡히지않네요 성적인  
 존재-성적인 것 의차이라.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라고 불리는 거 보다 여성-섹시한 여성  
 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듯해요/  
 담요 남의 말:  
 아. 그런가요? 주어를 붙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나와 사회의 관계의 측면에서입니다. 성적인  
 존재와 성적인 것의 차이를 여전히 모르겠음/  
 (L.one). 임 남의 말:  
 그렇다면 성적이라는 의미 역시 사회에서  
 규정된다는 것인가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남의 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적존재라는 것은 사회와의  
 관계에 있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 같구 성적인  
 것이라고 함은 사회와 개인이 만들어내는 문화  
 비스무리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남의 말: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성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건 만일 그렇다면^^: 왜 일까요? 아니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떻게 드러내나요? /  
 (L.one). 임 남의 말:  
 대개 성적인 것을 드러내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으흠..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항상 느끼지만 성적인 존재  
 이전에 인간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은 남의 말:  
 맞아요 저도 임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인간이  
 성적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듯해요  
 정신과 육체같은 이분법으로 /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남의 말:  
 혹은 무지 쉽게 드러낼수도 있겠조...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 자연스럽게 성적존재로  
 드러나고 있는거 같아요/  
 담요 남의 말:  
 근대 전 성적인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근대 확실히 '성적'이라는 말이 두  
 측면인 것 같아요. 사회적 성역할로서의  
 의미랑....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지  
 않는군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남의 말:  
 그런거 아닐까요? 사회적으로 규정받는 것과  
 내가 총체적으로 존재로서 향유하는 성적인 것/  
 담요 남의 말:  
 여성적 혹은 남성적 매력이라는 것. 총체적으로  
 존재로서 향유하는 성적인 것!!!!!!/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남의 말:

아~ 여러분 질문을 더 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성적이라면 어떤 모습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남의 말:  
 옷차림이요 머리모양이랑구두. 치마, 바지라도  
 여성의체형에 맞는 것, 등등 남자의 경우에는  
 짧은 머리, 털 등/  
 담요 남의 말:  
 전 섹시하게 느껴지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어요-☆-전 동그란 뺨뽕수가 잘 드러나는  
 사발한 남자/  
 (L.one). 임 남의 말:  
 엄청 더운날 미친듯이 축구하고 수돗가에서  
 머리감는 모습 좀 섹시하게 보이던데요/  
 유은 남의 말:  
 저는 예쁜손을 봤을 때랑 매력적인 목소리로  
 노래할 때  
 그리고 엉덩이가 예뻐보일 때=/  
 옛지 남의 말:  
 저는 피부가 고운 남자를 봤을 때 특히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중얼거리게 되는 거  
 같아요 이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일은  
 너무 익숙한 일이라고나 할까..그러다 보니까  
 '아 성적이다' 싶은 생각을 굳이 하지 않는거  
 같아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남의 말:  
 저는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알았던 것은  
 여성이다 남성이다 라고 구분 짓는  
 기준이었는데 다른 남들은 성적으로 매력이  
 있다 라는 것을 열거하고 계셔서...다른 성 이견  
 같은 성이건 간에 그들을 매력적으로 느낄  
 필요는 없었니까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남의 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성적으로 느낀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너 성적이야'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냐면 '성적이다'라는 말이 반드시  
 '매력적이다'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L.one). 임 남의 말: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칭찬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담요 남의 말:  
 근대 '성적이야'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진  
 않고  
 '섹시해' 혹은 '아해' 등등으로 쓰는거 같은데./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남의 말:  
 흠...저는 거기서 뭘 미질감을 느끼는 게,  
 성적이야 라는 표현을 나랑은 다르거나 같다  
 라는 정도로만 쓰고 있어서요...그리고 성적이야  
 라는 표현을 매력있어 내지는 섹시해 라는  
 표현으로 쓸 경우에는 '성적으로 어때어때해'  
 라고 하죠/  
 (L.one). 임 남의 말:  
 '성적이다' 라는 말이 안 좋은 뇌양스를 풍기기  
 때문인가요? 레종남과 담요남 저에게는  
 '아해'라는 말이 더 안 좋은 의미같은데 /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아니요..그렇진 않구요.. '성적'이라는 것은  
구분하는 기준일 따름이고 좋다, 싫다를 말하려면  
거기에 수식어나 술어를 붙여쓰는 게 더 풍부한  
의미를 담아낼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이 자리는 그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들 저렇게  
생각하니라는 걱정이 앞서는 건 아니시죠 다들?  
좋아요. 색시하다라는 말, 어떤 의미인가요,  
각자에게?/  
(L.one). 임님의 말:  
저에게 있어서는 나쁜 의미는 아니예요.  
당요님의 말:  
내가 성적 매력에 있구나..하는 의미/  
(L.one). 임님의 말: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조금은  
기본 줄을 것 같은데요 당요님과 마찬가지로 /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저도 성적으로 매력에 있다는 의미로/  
옛지님의 말:  
더 없는 찬사죠--/  
당요님의 말: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변태  
섹시 기사가 일지리에 나온 나한테 '아가씨  
섹시한데'라고 하면 무섭죠 -ㅅ-/  
옛지님의 말: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겠네요,  
(L.one). 임님의 말:  
동감 그런데 성적인 매력에 있다는 말이 왜  
기본줄게 생각될까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저는 두가지 경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상대방(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에게 호감을 사고 있다는 의미로 그렇고  
아니면 상대방(일반적인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인다는 의미로 스타 같은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그런 이미지를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L.one). 임님의 말:  
그럼 색시한 이미지는 호감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항상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요?/  
유은님의 말:  
음 저는 사실 색시하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색시하다라는 것의  
이미지가 특히 여성에 있어서 얼굴과 가슴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게 굉장한 반감을  
줬었어요 어렸을 때는/  
(L.one). 임님의 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저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얼굴이나 가슴이 색시할 때도 색시하다고  
하지만,  
대개 그런것보다는 그냥 갑자기 색시하다고  
느껴지는 여러가지.../  
유은님의 말:  
남자애들이 '저 여자애들 몸매 참 착하네'라는

식으로 피식대며 아우하는 것같이 느껴지고  
(아직도 그런 감은 있어요) '색시하다'라는 것에  
반감을 버리게 된 계기는  
정말로 색시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보았고  
좋았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ㅎㅎ/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저는 개인적으로 색시하다는 표현을 안하려고  
애쓰답니다^^/  
옛지님의 말:  
색시하다는 말이 의도나 맥락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몸,  
육체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표현되는 성적인  
표현 방식인거 같아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육체라고 다르게 색시할 수도 있나요? 바다나  
수영장이^^전 재 몸을 던지고 싶을 때 가  
깝거든요/  
(L.one). 임님의 말:  
저 같은 경우에는 꽃, 다른 게 있다면 물고기가  
색시한 것 같아요 물고기가 천천히 유영하는  
모습도 색시하고 지느러미가 흔들 흔들하는  
모습도 색시한 것 같아요 --/  
유은님의 말:  
바다나 수영장이 색시한 게 아니라 그 이미지가  
색시한 게 아닐까요? 같은 예인가^^/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뽀티스름이라고 하나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색시하다고 느껴지는 안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유부님, 교수님, 예뻐들어..^^/  
(L.one). 임님의 말:  
글쎄요.. 색시하다고만 느끼는 거라면 아무  
상관없지 않을까요?/  
당요님의 말:  
엄마 아빠 -ㅅ- \*\*\*종답입니다/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저는 아니예요...아까 임님도 그랬지만  
사물이나 인간이 아닌 대상에서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지님의 말:  
엄마 아빠에게 색시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는 술자리에서 얼마간 연애하고  
싶다고 고백하던데요/  
당요님의 말:  
전 교수님도 색시하다고 느끼는데 -ㅅ-물론과  
로 교수님\*/  
(L.one). 임님의 말:  
저같은 경우는요 교양 교수님인데 나이가 한  
50대쯤 되는 여자 교수님이었거든요.그  
교수님의 볼어발음이 색시하다고 생각한적  
있었어요 --볼어가 원래 색시한 언어라서  
그럴까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웃소리, 입술 내미는 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옛지님의 말:  
그런 경우들에서.. 그냥 한걸음 물러서서 색시해  
보인다는 건가요. 아니면 호노적거리게  
지느러미나, 볼어발음에 대해서..자신의 몸이  
색시함을 느끼며 진동하나요?/  
(L.one). 임님의 말:  
그 정도까진 아닌데 좋게 느껴지는 거죠/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사람들마다 감각의 예민함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당요님의 말:  
색시하다고 느끼는 순간 엄청나게 그 상황과 그  
상대에게 몰입하게 되죠/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호오.../  
아...그런데에 있어서..저는 엄청 억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예민하다 아니다 라기 보다  
그것을 초자아가 ㅋㅋ 감각 자체를 억누를 수는  
없을 거 같구...몰입 행위를 말이에요/  
옛지님의 말:  
\*\*\*무슨 말씀이신지 감이 오네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저... 색시해지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어떤  
노력?/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저는 운동을 두달간 다녔죠^^/  
(L.one). 임님의 말:  
입으면 색시할것 같은 웃이 입고 싶잖아요  
그런데 입으면 안 예뻐질 것 같아서 싫을  
뿐이겠지~~고 생각해서 운동했던 적이 있어요  
/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남성의 경우에는 웃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  
이점이 있는 거 같아요...요새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듯 해도/  
(L.one). 임님의 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모가  
색시한 것에는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당요님의 말:  
저는 가슴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브래지어를  
안 하고 다니는 게 편한데, 너무 많이 신경이  
쓰여서 노브라 못할 때가 많음. 더군다나 여름엔  
유두가 보이기 때문에-ㅅ-/  
사실 저는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안하고  
대폰을 나서는 순간 느껴지는 그 시선들./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해보면 방법을 찾거나 잊게 되요 브라의  
존재를^^/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제 선배는 그래도 안하고 다녀요 ~/  
옛지님의 말:

저도 안하고 다녀요/  
(일동 웃음)  
당요님의 말:  
부럽습니다 옛지님/  
(L.one). 임님의 말:  
해본적 있으세요? 옛지님/  
옛지님의 말:  
어렸을 때 장난으로 많이 했죠. 엄마 깨 몰래  
커서야 못하지만/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예전에 드라마 사춘기에서 정준이/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갑배 드러내기위해  
브래지어를 차더라고요...그걸 체육선생이  
오해하는 게 이야기의 주요 내용^^/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질문. 색시한 육체는 어떤 거예요?/  
(L.one). 임님의 말:  
꼭 봐서 색시하게 느껴지는거 아닐까요?? 저는  
다 보는데  
저는 보통 체형의 인간이 가지는 몸의 곡선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말랐거나 너무  
중중하면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몸 부위의 각각의 곡선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음...제 여친은 턱선, 날개죽지, 엉덩이를 주로  
보더군요 --/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사실 몸이 좋다고 색시해 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육체를 넘어서 애길 해본다면?/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저는 육체를 떠나서 이야기 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L.one). 임님의 말: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색시한 육체가 가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예요.  
몸의 모양에서 색시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목소리나 말투나 몸놀림 같은 것에도 색시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어렸을 이런 건 육체를 떠나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옛지님의 말:  
굳이 육체가 아니어도, 다른 것들로부터  
색시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자기 감각의  
역향이겠죠). 색시함을 접수하는 곳은 분명히  
몸이 아닐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요님의 말:  
전 문득 전화를 하다가  
옛지님의 말:  
색시함을 느꼈나요?/  
당요님의 말:  
전혀 성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상대방이 색시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목소리나 말투, 그런 것 때문이겠죠 근데  
성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이 더 자극적이랄까 -ㅅ-/  
-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그러니까 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성행위가 가능하겠죠~/

당요 님의 말: 네 되게 경계가 모호한 것 같아요

물이 하는 섹스와 혼자 하는 섹스의 경계/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성적 쾌감 구체적으로 느낌을 나열해보죠/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평평한 긴장감/

(L.one). 임 님의 말: 영혼의 고통을 듣는 거 같지 않아요??

너무 추상적인가:/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영혼까지는 안가고요~/

(L.one). 임 님의 말: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인데/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제 영혼은 그걸 억누르는 편이라...ㅎㅎ/

옛지 님의 말: 근데 임은 정말 대단한 거 같네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도 수련해보고 싶다는/

(L.one). 임 님의 말: 왜 억누르시나요??/

당요 님의 말: 하늘거리는 치마를 입으면 바람이 살갗에 바람이 치마에 와닿는 느낌, 그런 것도 스스로 성적 쾌감으로 느껴질 때도 있음/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좋아요 그럴 느낌 때가 언제가요 대체?!!/

(L.one). 임 님의 말: 딱 까놓고 말하면 성적쾌감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때는 자위할 때 아닐까요??/

당요 님의 말: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자위할 때 다들 어떤 상상을 하시는지 물어도 될까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섹스장면이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불을 끄든 커든 낮이든 밤이든 하겠다 마음먹으면 되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그럴조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성기의 자극만으로 충분한 듯하니까 네...자위를 할때 그렇게 대단한 상상을 해야지 망억는 경우는 별로/

옛지 님의 말: 저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상상력은 거의 고갈되다시피 했어요 더이상 떠오르는게 없네요

전 자위를 할 때 진짜 정신적으로 자위를 해요

자학을 하고 어제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오르가즘을 느낄때 상상을

해요. 예를 들면, 막 혁명이 일어났거나, 내가 갖고 싶은 게임시디를 공짜로 준다는거나 그 짧은 순간에 상상을 막 터트리면 천국 같죠/

당요 님의 말: 저는 현실적으로 쉽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하기도 하고/

(L.one). 임 님의 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남자들 같은 경우에 성인 잡지 보면서 자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요??

포르노 잡지라고 해야 하나??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생각을 안한다는 게 맞는 표현인 듯/

옛지 님의 말: 그런 경우라면 아마 별생각은 없겠지만 그 속에 남자배우와 자신을 동일시 할걸요/

당요 님의 말: 저도 가끔 포르노 보면서 할 때가 있는데 그 상황에 몰입해요. 포르노가 만들어 주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L.one). 임 님의 말: 저는 여자 누드 사진이 많은 잡지를 말한거 였거든요.

포르노 잡지랑은 또 다른거 였군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성애의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 남자배우가 없는 경우는 상상력을 더욱 발휘해야하는 고충이.../

당요 님의 말: 근대 대부분 포르노는 남자 배우의 얼굴은 안 나오고 나와봤자 성기 아니면 남자 배우의 삼겹살 등등/

(L.one). 임 님의 말: 그럼 여자배우의 얼굴은 나오나요??/

당요 님의 말: 네 대부분 그런듯/

옛지 님의 말: 남자들은 주로 가려지죠/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수 요소인 듯해요/

(L.one). 임 님의 말: 그럼 여자배우의 얼굴은 나오는데 남자배우는 얼굴을 제외한 부분이 나온다는 뜻?/

당요 님의 말: 예쁜 포르노는 대부분 남성이 자신을 대입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는것 같아요 여자는 주로 대상화되고.../

(L.one). 임 님의 말: 여자가 자신을 대입하는 그런 포르노는 없나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네 그런 의미에서 남성의 얼굴이 가려지는 듯, 네. 그런 시도가 있다는 걸 책에서만 보구 현실에선 보질 못했네요 돈이 안되서 그런가?/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포르노가 성적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나요? 의미가 있을까요?/

(L.one). 임 님의 말: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여성에게 포르노는 더더욱 도움이 안될 거 같은데요 저도 예기는 들어보긴 했는데,/

옛지 님의 말: 일반적으로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포르노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방종술에 관한 영상을 같은거는 얼마 전에 봤는데 누구에게나 유익할거 같았어요 여러가지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에 맞는 스트레칭 방법이나 성기관을 강화시켜주고, 성관계에 임할 때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있는데,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성적관계를 가지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성애물이 필요하다는.../의학적으로 필요합니다...그런데 그런걸 포르노라고 그러나요?/

(L.one). 임 님의 말: 포르노의 명확한 의미나 경계가 있나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영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그러는데 성애물과 포르노는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 외서는 모든게 상업화가 되어버려서 둘의 구분이 무의미한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예술성을 배제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위한 도구?/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로마시대에 몸 파는 계층 중 가장 낮은 계급을 부르는 거였대요 성노예./

(L.one). 임 님의 말: 그럼 장르로서의 포르노는 그런 의미인가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그건 근대 이후에 나타난 의미일 듯/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어쨌든 근대 이후에 살고있는 사람들이니까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포르노를 고대의미부터 찾는다면 대안포르노자체가 불가능할거 같아요 그 용어 자체가/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근데 장르로서 포르노도 그런듯해요/

당요 님의 말: 굳이 대안 포르노에 '포르노'라는 말을 갈다 붙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혹시 이 말에 모두 동의하시나요? '포르노는 남성위주의 판타지 결정체다'/

(모두 이말에 동의 한듯)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사실 그렇다면 정말 상상력이 빈약한 판타지 같아요 lol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끝이 항상 똑같은, 그게 포르노의 본질이라 그런건가?/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저는 그게 포르노의 본질이라고 봐요..대안적인 포르노라는 것도 결국에는 섹스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게 될수 밖에 없다는/

(L.one). 임 님의 말: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준남재서 말하는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협소한 의미의 섹스만을 보여주는 거요 그게 성애물하고 포르노가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요/

옛지 님의 말: 대안적인 포르노라는 것도 결국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데 주력한다면 단지 기술적인 도움일 뿐이고 비아그라가 갖는 의미나 별반 다르게 없을거 같은데,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비아그라보다는 훨씬 싸겠죠/

옛지 님의 말: 네~/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잠정적인 결론은 비아그라 가격을 낮춰라?/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아뇨 그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닐까요?

비아그라는 돈이 없고 포르노는 재미없을 뿐더러 저한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보죠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역할을 계속 강요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내 스스로 느끼게 된 계기가 있다면? 성적존재로 살아가기와 '나'를 관련지어서 얘기해봐요/

(L.one). 임 님의 말: 내가 여자인 것을 느끼게 된 계기?? 전 잘 모르겠어요. 워낙 자각이 없을 때부터 역할이 주입되어 왔던 터라 게다가 저는 정말 여성적이라는 게 뭔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만족하는 여성적인 그런게 너무 같듯이 심해서 /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님의 말: 강요받기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음...고등학교 같은 반친구가 굉장히 이랬다는(동성) 기억이었어요. 그당시에는 별로 대단한거 같지않은데 대학에서 그게 새롭게 인식이되었다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제 어린 시절은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성적

존재인 것을 향유하면 안되는데, 주변에서는 특히 어른 남자가, 소년들은 저를 그렇게 바라봤던 거 같아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제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 왔군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고등학교때 자신이 성적존재였나요?  
 담요 님의 말: 전 고등학교 때 복서실에 다녔는데 어느날 밤에 공부하는 세스가 생각난 것도 아니고, 세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몸이 달아올라서 밤12시에 동네를 몇 바퀴나 빙빙 돌면서 열을 식히야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므로 고등학교 때도 나는 성적 존재였지요.. 그렇다고 복서실에서 자위를 할 수도 없고!! 난감했음/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음...어떤 면에서 그랬다고 생각해요...그게 활동적인 게 아니라, 주어진 가치관에 동의하고 살아와서 그렇지 저는 보통 꿈에서 그랬죠^^/  
 (L.one). 임 님의 말: 그거 제가 보기엔 특별한 경험인거 같아요.  
 담요 님의 말: 자위를 어릴 때부터 해서 그랬나 -\_-/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아니요^^ 어렸을 땐데...피노키오에 나오는 요정 있잖아요?  
 그 요정인 거...  
 옛지 님의 말: 보통 자위를 시작하게 되면서 인식하게 되지 않아요.  
 (L.one). 임 님의 말: 그렇게 따지면 저는 성적존재를 늦게 인식한 셈이네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사실 자위가 시작한 게 바람직! 한 거 같네요. 저는 안 그랬지만^^/  
 옛지 님의 말: 저는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롭고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내손으로 할 수 없을까 싶어서..제가 방구석에서 시술을 하다가 자위를 발견했거든요 그때부터 인생이 많이 달라진듯/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근데 자위나 이차성징이 아니더라도 성 역할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인식을 못했요/  
 (L.one). 임 님의 말: 그거 태어날때부터 요구되는 것 같아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자 그렇다면 중학교 때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중학교때 2차성징이.../  
 담요 님의 말: 그땐 그냥 평화롭게 자위를 잘 하고 지내던 시절~/  
 (L.one). 임 님의 말: 저는 생리 외에 2차 성징을 잘 못 느낀 것 같아요.중학교때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는 별일 없었던 거 같은데 /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저는 싸우고 돌아오고, 부모님하고도 싸우고, 연도도 하고, 몽정도하고, 운동도 하고...그런 거 같은데.../  
 (L.one). 임 님의 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순정만화를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판타지를 키우고 있지 않았나 --:전 서로 만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담요 님의 말: 옛 나두요 세스에 대해 상당히 막연했어요\*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같이 물물 하면 되는 줄 알았음 난 '애기 가지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애기 가지게 되는 줄 알았음 초등학교 때-스/  
 옛지 님의 말: 하하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만화::그래요^^, 그리고 포르노도 처음 본게 중학생 때니까/  
 담요 님의 말: 저는 자위는 세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한 편인데 세스를 어떻게 하는지는 상당히 늦게 안 편/  
 (L.one). 임 님의 말: 저는 임신에 대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옛지 님의 말: 저는 세스를 청 해본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착공이었는데, 동성이었어요. 그때 그 날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모두 옛지에 말에 경악!! 오오오!) 아마 지금까지도 돌아보면 그게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세스에 대해서 하니까 그러는 건데...여성의 성기는 넘 어려워요/  
 담요 님의 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해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눈에 잘 안보여서/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눈에 볼을 키고 보세요/  
 (L.one). 임 님의 말: 그건 진짜 동감이에요. 고등학교 때

클리토리스의 존재를 알았는데 그 후에도 자위를 하는 법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연구 되게 많이 했는데/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여성은 자신의 성기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요.예전에 '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전희경이 연구를 하다가 팔을 다쳐서://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팔 꺾어 보려고 하다가 그랬죠/  
 (L.one). 임 님의 말: 저는 대학가서 아내의 일기를 읽었는데 거기 자위에 대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담요 님의 말: 아내의 일기가 내 중학교 시절 성적 판타지를 키우던 바이블이었는데 아내랑 아내 남편 이야기/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저는 금병매(중국의 4대 기서중 하나) 수호지, 삼국지, 금병매, 홍루몽 기본적으로 추리소설인데요 대강집 8번째기로 시집을 가서 성님들을 하나씩 죽이는 내용/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제가 아까 꼬치꼬치 중학교 때 까지 물어본건요 어릴 적에 우리 성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자란 거 보면, 스스로 익히는 건가요? 책을 때까지 고민해야 할까요?/  
 담요 님의 말: 잘 자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자랐지만\*\* 동담//  
 (L.one). 임 님의 말: 저두요, 계속 고민하고 얘기하면서 알게 되는 게 아닐까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네...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많은 듯/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그렇죠? 우리들이 성적존재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거 같죠? 왜 그럴까요?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는 엄청 고민하는데.../  
 담요 님의 말: 전 엄청 고민 했는데-스-나는 스스로 성적 존재로 잘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올 엄마 입장에선 내가 별로 잘 자라지 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L.one). 임 님의 말: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연애이데올로기... 때문에 성적존재에 대한 고민이 이성적 존재에 대한 고민으로 치환되는 거/  
 (L.one). 임 님의 말: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성적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aujourd'hui je rencontre des gens sympas  
 님의 말: 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 단 한가지 밖에 선택이 없는 것처럼 자란 거 같아요. 여자니까 본충색, 여자니까 브라, 여자니까 다소곳이, 등등 (임이 대화방을 나가고 모두 지쳐버렸음ㅠ유은은 그 전에 나갔음)  
 좋아요 그럼 정리해요. 오늘 3시간 얘기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옆에선으로 대화하는 방식이 편하기는 한데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담요 님의 말: 그럼 만나서 얘기할까요 \*/  
 독도?/ haha...imagine there's no countries,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님의 말: \*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포괄적이라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했던 거 같고 초반에는 기획의도에 따라서 사적인 이야기를 편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추상적이었던 거 같기도 해요^^ 존중 비판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는데,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많았죠? 감동적인 것은 모두가 솔직하게 얘기해주었다는 점. 정말 고맙워요.  
 당신의 성적쾌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삶 속에서 당신이 성적 존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다음 기회에는 여러분을 수다하는 꽃밭에 초대할게요!

## 내 생애 꼭 하나뿐인 특별한 날

by 임 (clarity@hanmail.net)

어제 철마 손장이 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신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유감스럽게도 신문의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신문의 한면 전체를 한 영화에 대한 기사에 할애하고 있었다. 8명 가량의 꽤 많은 사람들의 평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평론계의 성대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 했다. 문제의 그 영화는 '낮은 목소리'로 유명한 변영주 감독의 작품이며 전경린의 '내 생애 꼭 하나뿐인 특별한 날'을 원작으로 한 '밀애'라는 작품이었다. 너무 오래되어서 기사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평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자 평론가들의 평과 여자 평론가들의 평이 극과 극을 달렸기 때문이다. 남자 평론가들은 '영화에 공감하지 않고 스토리도 잘 이해되지 않으며 극중 묘사도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그에 반해 여자 평론가들은 '정말 여성의 마음을 절묘하게 묘사한 공감 가는 영화'라고 입을 모았다. 이 기사로 나는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안타깝게도 (혹은 당연하게도) 영화는 연소자 관람불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엔 볼 수 없었다.

'밀애'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2003년 여성영화제에서였다. 출품작이었던 것이다. 그때 좋은 기회로 여성영화제에 영화를 출품한 3명의 여성 감독의 인터뷰 자리에 끼일 수 있었는데 그때 변영주 감독이 재미있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낮은 목소리'를 찍어서 세상에 내놓았을 때는 평론가들이 칭찬에 칭찬을 더하는 칭찬밖에 할말이 없다는 듯한 평론을 했지만 영화를 제대로 본 사람은 없었다. 이에 오기가 생겨서 다음번엔 꼭 내 영화를 보게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밀애'였다. 이 영화는 혹평은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이 평들은 내 영화를 보고 써준 평들이기에 만족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다. 여성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피상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여성은 억압받아왔고 역사의 피해자였던 것에 동의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현실 말이다. 마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내 이웃에 흑인이 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때 두 영화 다 보지 못해서 뜨끔해 하던 기억이 난다.

밀애를 보게 된 것은 2004년 여름이었다. 밀애를 보고 난 지금은 그 영화가 여성의 삶과 판타지에 대한 영화라고 말하고 싶다. 남편과 초등학교 딸이 있는 평범한 주부인 '미혼'의 삶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남편의 애인 때문에 엉망이 되고 만다. 남편의 애인 내리친 무언가에 맞아 잠시 병원에 입원한 후로 원인모를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그녀의 삶의 외욕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위해 시골로 이사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던 차에 이웃이며 두통을 진료받는 의사인 '인규'가 그녀에게 어떤 게임을 제안한다. 그것은 연인들처럼 사랑을 나누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지게 되는 게임이다. 제안을 받아들인 미혼과 인규의 사이는 점점 깊어지고 결국 함께 떠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규는 죽고 미혼은 살아남아 일용직으로 연명하여 홀로 살아가게 된다.

미혼은 가족과 함께 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정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한 여자에 의해 너무도 간단히 부서져 내린 허상일 뿐이었다. 그후에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한숨과 같은 몸짓과 드러나지 않는 허무의 중압감일 뿐이었다. 간혹 나의 엄마에게도 이런것을 한순간이지만 몇 번이나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집안에 들어앉은 여자의 행복한 삶이라는 건 단지 위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장일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영화 'The Hours'에서도 볼 수 있다. 늦잠 자는 부인을 위해 아침을 챙겨주고 어린 아들을 돌본 뒤에 직장에 나가는 자상한 남편과 귀여운 아들이 있는 줄리안 무어는 뱃속에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채 아들과 함께 남편의 생일 케일을 만들다가 갑자기 아들을 옆집에 맡기고 어디론가 떠난다. 어느 모텔에 들어간 그녀는 다량의 수면제를 꺼내어 자살을 기도하려 한다. 그러나 도저히 실행에 옮길 수 없었던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케일을 만들고 아들과 남편과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몇 달뒤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집을 나가버린다. 왜 그녀는 수십년간을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또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보통 사람들에게 판타지라는 것은 드러내어서는 안되고 실행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니다. 특히 여자에게 판타지는 단지 간직하고 있을 뿐 절대로 드러내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여성에게 자위가 금기시 되는 것처럼 판타지는 간직하는 것조차도 불가한 것으로 취급될 때도 있다. 한 예로 한류스타 '배용준'의 광팬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한 중년의 일본 여인을 비판하는 일본 매스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하게 일명 '빠순이'라고 불리는 여학생들을 매도하는 시대 풍조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회는 남성이 판타지를 드러내는 것에는 더 관대하다. '디시인 사이드'라는 한 사이트에서 남친 갤러리보다 여친 갤러리가 더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의 한 예이다.

밀애의 '미혼'은 '인규'와 게임을 시작하면서 생활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바삭바삭 마른 꽃 같은 눈동자와 몸짓에 생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 가슴을 때리던 그녀의 허무한 눈동자가 미소로 가득 찰 때의 그녀는 진정 아름다웠다. 바깥에서 인규를 만나기 위해 빨간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던 그녀도 아름다웠다. 나는 이것이 그녀가 자신만의 판타지를 꿈꾸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 의욕도 희망도 없는 삶에서 그녀에게 아름다움과 말해주는 남자가 그녀가 다시 꿈꿀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원래 게임이라는 것이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줄리안 무어에게는 너무나 평화로운 그래서 질식할 것 같은 가족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찾는 것이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이 돌처럼 깃누르는 죄책감을 풀어지게 되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이것은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그토록 유지하려고 하는 가족이라는 체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가족체제는 여성에게 좋은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만을 요구함으로써 여성의 판타지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판타지를 희생시켜서 지금의 가족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혼과 줄리안 무어는 평온한 가족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택하고서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사진관에서 미혼이 입고 있는 붉은 드레스는 그녀의 인생중 진정 특별했던 그 날을 다시 걸치고자 하는 욕망이며 그녀의 판타지이다. 눈물을 닦으며 살짝 짓는 웃음에 내 가슴이 눈물로 가득차는 것 같은 느낌은 그녀에 대한 동정일까.

## 첫 경험은 환상인가?

by 읍 (happyblues@hanmail.net)  
꿈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읍



여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첫 경험에 대해서 고민해본적 있을 것이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첫 경험에 대해 상상도 해보고 나름대로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의 잣대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해보기도 했었을 것이다. 나 역시 '첫 경험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사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까지 무수한 유혹들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필요했다. 참고 또 참으면서 어디까지나 섹스는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젖어 영화 『팻걸』을 보게 되었다.

영화는 두 명의 자매가 첫 경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형같이 생긴 16살

엘레네, 언니와는 정반대로 생긴 뚱뚱하고 예쁘지 않은 14살 아나이스 이들 둘은 전혀 달지 않은 것처럼 전혀 다른 첫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쁜 엘레네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첫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아마 엘레네는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연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바캉스에서 만난 이태리 남자 페르난도가 엘레네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 했던 수많은 감언이설을 보면 그녀가 환상을 가지게 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엘레네는 동생과 같이 자는 방에 페르난도를 불러들인다. 침대에서 페르난도는 엘레네의 몸을 어루만지며 그녀와 섹스를 시도 한다. 그러나 엘레네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의 감언이설은 시작된다. 섹스는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다.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은 다른 여자랑 했으면 좋겠냐. 난 널 제대로 갖고 싶다. 페르난도의 온갖 신경에 거슬리는 발언들을 지켜보며 ' 과연 엘레네는 그 남자와 잘까?'라는 생각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하게 되는군..'이라는 허탈감을 가지게 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긴 정사면(scene)임에도 불구하고 별거벗은 그들을 보며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섹스에 대한 낭만적 환상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섹스는 약간은 미화된 것이었는데 감독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것은 단지 자극적인 시각이 아닌 섹스 문제에 대해 되돌아보라는 메시지였던 것이다. 만약 이 장면을 보고 남자들이 화장지를 움켜지게 된다면 그들은 저 영화에서처럼 단지 여자와 섹스를 하고 싶어 발광하는 별거숭이 남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엘레네와는 반대로 어떤 남자도 접근해오지 않은 fat girl 아나이스는 아무나와 첫 경험을 하고자 한다. 아나이스는 엘레네와 달리 뚱뚱하고 못생겼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녀에게 환상을 심어주기보단 다가오지 않는 남자들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게 했던 것 같다. 그녀는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한 남자들의 욕구를 채우는 피스톤행위에 대해 가차 없이 찬물을 드리붓는다. 바캉스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리석은 사랑에 울고 있는 언니에게 그 남자는 벌써 잊었을 것이라고 첫 경험이 힘들지 이제는 다시는 이런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언니를 위로

한다. 짧은 바캉스를 뒤로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 휴게소에서 문을 잠궜놓고 쉬는 동안 도끼를 든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차의 앞 유리를 깨고 앞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언니와 엄마를 죽인다. 뒷 자석에 앉아있던 아나이스는 도망치다 붙잡혀 그 피한의 남자에 의해 강제로 첫 경험을 하게 된다. 노란색 팬티를 입에 문채 정말 무덤덤하게 그녀는 그와의 섹스를 한다. 그러나 아나이스는 엘레네와 달리 상처받지 않는다. 나중에 경찰들이 나타났을 때 자신은 강간을 당하지 않았노라 말하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게 된다.

마지막 장면은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떤 여성이 전혀 모르는 피한에 의해서 섹스를 하게 되었을 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 역시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면 수치심에 목이라도 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 속 아나이스는 강간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다. 나는 피해자가 되지 않은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비록 아나이스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고 원하지 않았지만, 피해의식에 자책하며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여성보단 더 멋진 선택이었다고 말해주고 싶다. 사회가 준 고정관념에 의해서 여성들만이 순결을 지켜야하고 자신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강간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성이 피해의식에 몸부림 칠 것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강간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강간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어쨌든 감독은 두 소녀의 첫 경험의 이름이 사랑의 표현이든 강간이든, 잘생긴 이태리 남자인 도끼를 든 남자인든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신성시 하는 첫 경험은 낭만적인 환상만이 아니었다. 영화를 보면서 줄곧 혼란스러웠다. 내가 생각해왔던 것은 다 무엇이었던가! 이 영화의 감독이 말하는 환상이었는가? 약간의 환상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든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든 결국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다.

나는,  
등을 긁는 것처럼,  
무릎을 쓰다듬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것처럼,  
발을 주무르는 것처럼, 자위를 한다.

by 쥐 (mc-escher@hanmail.net)  
'기타 가르쳐 주세요!'

어린 시절, 목욕탕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할 나이, 엄마는 나에게 '그곳은 스스로만 저서는 안되는 곳'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내 소음순이 남들과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소음순은 나의 성기 속에 꼭꼭 감춰져서 밖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안되는 곳이었다.

혼자 쓰는 방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 나는 내 성기를 마음껏 만질 수 있게 되었다. 작은 침대에 누우면 정면으로 보이는 시계. 나는 그 시계의 초침을 보며 자위를 시작했다. 그때 나는 무엇을 떠올렸을까? 아내가 피터와 다락방에서 키스를 하던 장면이었을까.

나는 나의 질 입구가 어디인지 몰랐지만, 나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작은 새\*의 위치를 내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작은 새의 이름을 나는 알 수 없었다. 알지 못했다. 언제나 나는 성교육 시간에도, 생물 시간에도, 가정 시간에도 임신이 되는 메커니즘과 배란일과 호르몬의 분비 따위를 배워 왔을 뿐이다. 백과사전에 어디에도 그 새는 없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은 파랑새.

그는 나를 신기해했다. 그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야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때, 그는 내가 자위를 하기를 바랐다. 전화선을 건너서 같이.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자위와 나의 자위는 달랐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절정을 기다렸겠지만 나는 그가 지시하는 대로 나의 질에 손가락을 넣고 싶지 않았다. 그는 대체 내가 어떻게 자위를 하는지 궁금해했다.

'네가 나에게 지시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너에게 나의 상상을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줘. 나의 새는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 나의 손이 익숙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나의 작은 새를 어루만지면 그걸로 충분해. 충분히 내 몸은 달아오를 수 있어.'

나는 등을 긁는 것처럼, 무릎을 쓰다듬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것처럼, 발을 주무르는 것처럼, 자위를 한다. 자위는 나에게 일상적인 일이다. 누구보다도 나는 나의 성기를 잘 알고,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 지 안다. 나의 보지는 내가 원치 않는 불상사로부터 지켜야 할 곳으로서 나의 몸의 일부인 것이 아니다. 나의 보지는 누군가 와서 건드려주면 그제서야 격렬하게 반응하는 곳이 아니다. 나의 기쁨, 나의 오르가즘은 나에게 '먼저' 있었다.

'바이브레이터\*를 쓴다고? 그것도 그렇게 자주 자위를 한다고? 그러지 말고 땀길 때는 나에게 말해. 내가 있잖아.'

'바이브레이터는 너와 달라. 내 손도 네 손과는 달라. 자위는 내 머리 속에서 상상하는 것들을 순식간에,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줘. 그렇지만 처음부터 자위가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냐. 처음에 나는 너처럼 뭔가 뿔어져 나오지도 않았고, 금새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득해지는 느낌이 오지도 않았어. 편안하게 몸을 누이고 내 몸의 긴장을 풀고서 나는 비로소 나의 새가 기쁜 함성을 지르는 것을 들었어.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연습을 했고, 시행착오를 겪었지. 나는 이제 알아. 어느 순간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왔지만 가만히 기다린다고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니었다고. 내가 먼저 새에게 말을 걸어야 그 새가 나에게 화답하는 것이라고.'



엘레지 / 김현우

옛 애인이 한밤 전화로 걸어왔습니다  
자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나는 가끔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하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별 나비를 생각해야만 꽃이 봉오리를 열겠니  
되물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레지...  
남해 금산 간섭이 남아 있던 문턱에  
탄탄한 몸을 뒹고 어린 꽃대 피워내던  
엘레지 꽃 생각이 낫습니다  
꽃대에 깃드는 새들의 감촉  
해토머리 습기가 잔뿌리 간결이  
오랜 그리움이 내 고향을 돌아나간 듯합니다  
엘레지의 꽃말은 바람난 여인이래  
바람이 꽃대들 흔드는 줄 아니?  
대궁 속의 격경이 바람을 만들어  
봐, 두 다리가 돌입할 줄 압니까  
쓰러뜨려 놓일 상대  
참숯처럼 뜨거워집니다

\*나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작은 새: 클리토리스를 말함  
\*바이브레이터: 거의 외음부 용으로만 쓰이는 여성용 자위기구. 스스로 진동을 하며 클리토리스 자극을 할 때에 쓰인다. dildo와는 다르다.

여객 푸는 중...



## 특별한 혹은 평범한 그녀들과의 만남

-여성주의 문화제, '밀으로'를 경험하다.

by 저리 (karma03dh@hanmail.net)

우울한 날이면 스스로를 위해 꽃을 산다.

그녀들과의 첫 만남은 온라인에서였다. 어쩌다 알게 된 '소곤소곤 다락방 (sogodarak.cyworld.com)'이라는 클럽에서 나는 그녀들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녀들은 나와 비슷한 것을 궁금해 하기도, 걱정하기도, 또 즐거워하기도 했다. 그녀들의 생각과 느낌을 듣고, 나는 이런 그녀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면 어떨지 참 궁금했다. 소식을 받기 위해 여학생위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교양 발표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점점 그녀들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는 더 깊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졌다. 책이 그녀들과의 인연의 끈까지 이어준 모양이다. 나는 '여성학도서관, 천리향(chunrihyang.cyworld.com)'에까지 손을 뻗어보았다.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 또는 새로운 책도 다치는 대로 읽어버렸다. 그러면서 나는 이젠, 더 많은 경험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들이 이번엔 내게 손을 뻗었다. 문화제 '밀으로' 실천단을 해 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당황스러웠다. 아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리고 그녀들은 나와는 조금 다른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순순히 "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다.

내가 만난 그녀들은 작은 것에도 웃었다. 즐거워했다. 글을 읽으면서, 만화를 보면서, 낙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좋아하고, 다정하고, 그녀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또 글로 표현하는 것에 참 익숙한 듯 보였고, 자유로웠다. 남의 이야기도 귀를 잘 기울여 주었고, 자신의 글에 대한 비판도, '쿨'하게 받아들였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비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잘 수용하는 집단은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 같다. 그녀들은 여태까지 생각지 못했던 신선한 아이디어로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나보다 어른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도 조금 변화한 것 같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 의견을 표현하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편해졌다. 평소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도 있었지만, 예전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의 금지된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금기시되던 이야기들도 이젠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고나 할까. 여성의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여성의 월경이나 자궁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듣고만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느낀 것, 내 경험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게 즐겁고 재미난다. "나는 이랬는데....., 너는 그랬구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 되다보면, 어떻게든 뭔가를 얻는다고나 할까. 내가 불쾌했던 점, 불편했던 점, 혹은 좋아하는 것들. 말하기 이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남의 말을 듣고 내 말을 하는 과정에서 치유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그녀들이 많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녀들도 많았기에, 생각하는 폭이 조금은 넓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번 실천단을 하면서 특히 내가 공감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느끼고 상상해봐'에서의 지하철을 표현한 조형물이다. 나는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불쾌감을 느낀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과제를 하다가 지하철을 늦

게 탔는데 옆자리의 술에 취한 아저씨가 내 허벅지를 스윽 쓰다듬어서 당황하며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내렸던 일이 있었다. 그런 일 이후로 술에 취한 사람이 지하철 옆 자리로 오면 괜히 긴장한다. 하지만 나는 지극히 소심해서 내 옆자리에 술 취한 사람이 앉게 되더라도 옆으로 옮기지를 못한다. 술 취한 사람이 나에게 미안해하거나 혹은 불쾌해 할까 봐서이다. 어쨌거나.

그 때 그 아저씨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며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받았지만, 술에 취했으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도 괜찮은 걸까? 난 너무 당황해서 내가 내리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난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였을까? 이런 건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는데, 나도 취하면 다른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를 이해해야 되는 건가? 나도 똑같이 그 아저씨를 불쾌하게 만들었어야 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할지. 아니면 그 역시 어떤 한 집의 평범한 아저씨일 테니까, 실수라고 했고 사과도 했으니까, 이해했어야 했나? 취한 상태이므로 이해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까? 이 정도 신체 접촉은 간단한 거니까 이해하고 더 심한 건 이해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혼란스러웠다.

또 양 옆 사람들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내 자리가 좁아서 불편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꽤 많다. 하여, 나는 자리를 차지할 때 이왕이면 여자들 사이로 간다. 경험상 여자들과 다리가 붙어서 불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체구가 남자들에 비해 작아서, 또 다리를 잘 모으고 앉아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타고 갈 수 있어서이다. 남자들이 다리를 모으고 앉았을 때 많이 불편할까, 약간 궁금하다. 실은 나도 다리를 붙이고 앉으면 좀 불편하긴 하다. 그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일부러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은 아마 아닐 것이다. 설마 그것이 '나는 너희들보다 넓은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회적으로 우월한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나는 (특히 여름에) 그렇게 모르는 사람과 붙어있는 건 좀 싫은데, 그들은 모르는 사람과 붙어있는 게 그렇게 불쾌하진 않은 건가? 조금만 모아주면 참 고마울 텐데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기는 약간 민망하고 말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하였고, 또 내가 느낀 차이는 이것이다. 그런 것은 치마를 입는다는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긴 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학습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어릴 때부터 치마를 입게 되고,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교복 치마를 입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여학생님들로부터 '다리를 좀 모으고 앉아라.'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여학생님의 경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남학생님들이 보기에 불편하다고 하셔서'이다.) 아니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여자들은 '내가 불편한 만큼 남들도 불편할 테니까' 자리를 좁혀주는 것 아닐까? 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부러 주위 사람들 불편하라고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남자가 아니라서 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

어쨌든 여자들은 남자들의 '눈'이 불편하니까 다리를 모으고 앉아야 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의 '몸'이 불편한데도 다리를 벌리고 앉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 실천단을 하면서, 그런 이상한 점이, 나처럼 소심한 여자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일상인 오랜 사회구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다. 나도 지하철을 탈 때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이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지도 모를 그녀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진다. 나와 비슷한 어쨌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녀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녀들과의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이 기다려진다.

## 문화제 '밀으로'를 만든 사람들의 한마디

류짱

이제 그만하고 싶다. 여성주의가 없어지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어있을테지. 그럼 끝??

임

벌써 3번째. 그래도 아직 혼란스러운 것이 너무 많다. 사회의 가치관에 의심을 품지 않을 날이 언제 올까.

저리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음

처음으로 여위 실천단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간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편견들을 다 뜯어고치고 싶다. 많은 생각들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뒤엉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스스로 그 해답을 찾고 싶다.

안

여성주의는 반성매매 특별법, 호주제 폐지, 교수 성폭력이 다가 아니다. 여성주의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이제 나는 상그리아 한잔, 끊이지 않는 수다, 그녀들이 웃는 얼굴, 애청들, 그리고 솟아오르고 솟아오르는 배려가 떠오른다.

유은

폴리네시아로 가고 싶어.

쥬

표현하고 싶다. 그 표현을 단지 리버럴하다로 읽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Thanks to. 학생회관 안에 있었던, 조형물을 가능하게 했던 모든 재료들. 선뜻 병풍을 빌려준 아마추어 축구부. 환상적인 파라솔을 무료로 빌려주신 닭집 아저씨. 동연실의 컴퓨터. 그리고 이것을 모두 같이 만든 당신들!

\*올해의 13대 여학생위원회와 실천단의 활동은  
chunrihyang.cyworld.com에서 보실 수 있다고들 합니다.